

학교 폭력 진실 게임! 야구 기자는 왜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을 고발했나?



KBS

강재훈 기자



1회. 플레이 볼! '진실 게임'의 시작

모든 건 우연히 들었던 소문에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이 돌았다. 단서는 이 한 문장이 전부. 수소문 끝에 해당 학교가 서울의 A고교임을 어렵사리 확인할 수 있었다. 야구부 2학년 학생 세 명이 동급생인 팀 동료 한 명을 심하게 괴롭혔다는 내용이다. 취재원이 전해주는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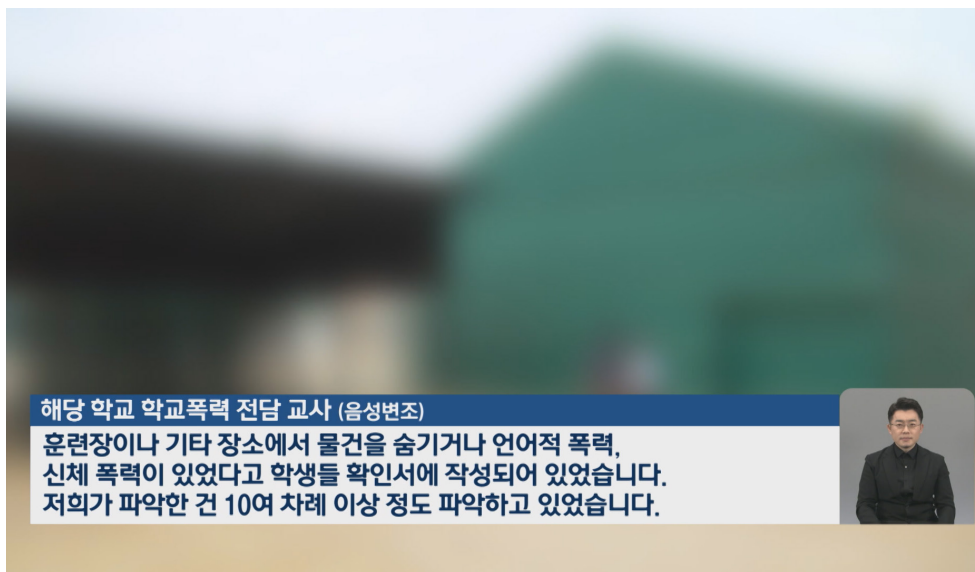
가해 학생들은 신체 폭력은 물론이고 전지훈련 때 피해자의 숙소 방으로 몰려가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심지어 “네 엄마와 여동생을 XX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괴롭힘은 1년이나 지속됐다. 취재원의 이야기로만 보면 당시 학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연상됐다. 학폭 수위가 높아 가해자들이 더 이상 야구하기 힘들 거라는 말도 들렸다. 취재원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가해 학생 한 명이 프

로야구 XXX 단장의 아들이라네요?”.

마지막으로 A고교를 찾아갔다. 교감 선생님은 의외로 순순히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 학생 B 군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 한 명이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인 것도 맞았다. B 군 담임 교사의 신고로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이미 야구부를 상대로 자체 조사를 끝마친 상황이었다.

2회. '학교 폭력'이냐? '학교 폭력 의혹'이냐?

학교가 밝힌 조사 결과를 보면 학폭임이 분명했다. 야구부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가해 학생들은 이 가운데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언어·신체 폭력을 10여 차례 이상 가했다”는 내용이다. A고교 학폭 전담 교사는 “가해 학생 측 부모들도 학폭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고교 야구부 '학폭 의혹'은 KBS 취재진이 해당 학교를 찾아내 학폭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서 단독 보도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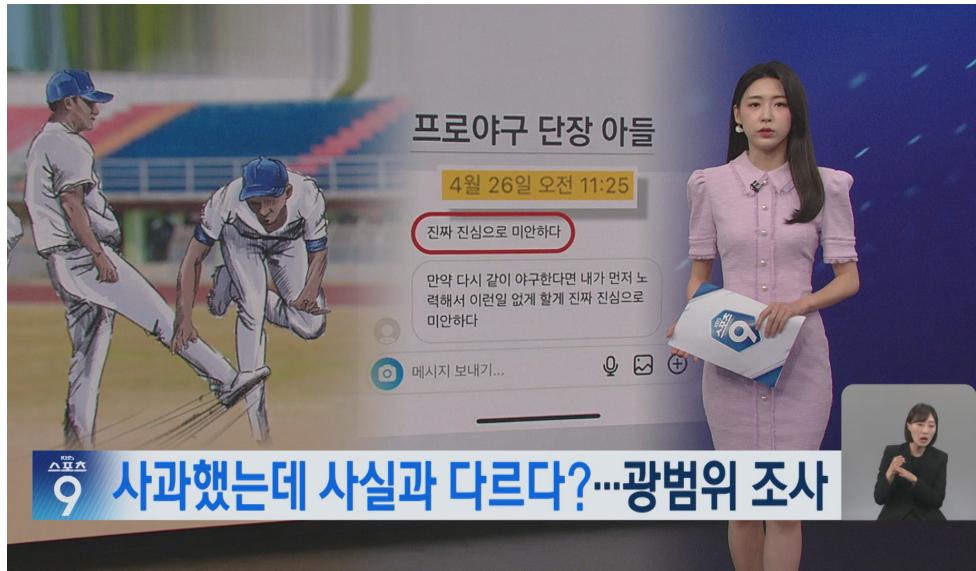
정작 프로야구 단장은 아들의 학폭 가해를 강하게 부인했다. 집안일인데도 구단 홍보팀에 문의하라는 등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 통화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단장은 “상대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우리에게도 진술서와 녹취록 등 반박할 자료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 학폭위 결정 전까지 학폭으로 단정 짓지 말라”고도 했다.

각 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는 지난 2020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학교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명칭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

다. 말하자면 학교는 학폭 상황을 확인했지만, 행정적으로는 아직 ‘학폭 의혹’ 단계인 셈이었다.

3회. 몸쪽 짹 찬 직구! 학폭 논란을 끝내다?

프로야구 단장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야구 학폭 의혹’은 단독 기사로 저녁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인터뷰를 찍고 리포트까지 하게 된 후배 기자와 방송 직전까지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민감한 내용인 만큼 혹시 모를 법적 대응도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늦은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후배와 샌드위치로 허기를 때우는 동안에도 후련함과 함께 ‘조금



프로야구 단장은 아들의 학폭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KBS는 후속 보도를 통해 논란을 잠재웠다.

이라도 잘 못 쓴 부분은 없었나' 라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KBS 보도 이후 프로야구 단장은 언론사들과 해명 인터뷰를 했다. 그는 “만약 학폭이 사실이면 내가 직접 아들의 야구 유니폼을 벗기겠다”며 아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심지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KBS는 후속 보도를 하기로 했다. 학교가 조사를 시작하자 단장 아들을 포함해 가해자들이 B 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미 사과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로 ‘학폭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자신했다. KBS의 보도

에 법적 조치 운운하던 가해 학생들 측에서 이 기사를 보고 잠잠해졌다고 A고교 관계자가 귀띔해 주기도 했다.

4회. 운동부에서는 자연스러운 갈등? 황당한 학폭위 결정

하지만 학폭위의 생각은 달랐다. KBS의 첫 보도가 나가고 두 달 뒤,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 처분은 심각성에 따라 가장 가벼운 1호(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퇴학)까지로 나뉜다. 야구부원들의 진술, 가해 학생들의 인정, 그리고 사과 문자 메시지도 있

있기에 ‘조치 없음’ 처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조치 결정문을 받아 읽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의 신체·언어 폭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단체 종목인 야구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라고 판단했다. 또, B 군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수집한 피해 증거들도 학폭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야구부 특성상 ‘10여 일의 기간 동안 상시 녹음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이든 학생들 사이에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솔직히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조치 없음’은 ‘입증할 자료가 없어 현재 학폭인지 판단할 수 없음’을 뜻한다. 제출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학폭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프로야구 단장 아들이 학폭 혐의를 벗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부서에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 오보가 아니라는 억울함, 함께 뒀 후배 기자에 대한 미안함까지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5회. 역전에 재역전?... 교육청 학폭위 질타한 법원

2024년 11월, B 군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학

폭위가 가해 학생 세 명에게 내린 ‘조치 없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가해 학생들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 학폭위의 처분을 뒤집고 B 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학폭위 조치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법원은 운동선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선수 간 상호 배려와 신중한 행동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크다고 봤다. 또 피해 학생이 녹취를 연출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외부인 접근이 쉽지 않고 제한된 공간과 인원 속에서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KBS가 ‘학폭 사건’을 단독 보도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었다. 나는 이 소식을 해외 장기 연수 중이던 미국에서 뒤늦게 타사의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 만감이 교차했다. 이제 ‘오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다.

6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야구부 학폭 사건의 씁쓸한 결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폭 피해자인 주인공은 가해자들을 한 명씩 응징해



교육청 학폭위가 학폭 의혹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양측의 진실 게임은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간다. 선과 악의 구분도 명쾌하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너무나 다르다. 주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진실은 교묘함에 가린다. 또, 결말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다.

B 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프로야구 단장 아들 등 가해 학생 2명이 항소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각하' 했다. 항소심에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가해자들과 피해자 모두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다룰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은 2023년 학교

를 자퇴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또 다른 가해자 두 명은 2026년 현재 대학에서 야구 선수로 뛰고 있다. B 군은 A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분리 조치가 끝난 가해자들과 야구를 해야 했다. 이후 대학 야구부에 진학했지만 끝내 운동을 포기했다. '괜한 분란을 일으켰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7회. 프로야구 단장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단장은 취임 직전까지 프로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했고, 국가대표팀 코치이기도 했다. 단장이 아니었던 시절부터 종종 학교 야구부

를 찾아왔는데, 학부모들과 야구부원들 앞에서 감독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B 군 측이 단장 아들을 학폭 주조자로 줄곧 지목해 왔던 이유다.

“단장 아들이 항상 학폭의 중심에 있어요. 그 애가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도 따라 하게 되는 거죠”(B 군 어머니)

투수로 A고교에 입학한 단장 아들은 나중에 포수로 전향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포수였던 선수 한 명은 포지션을 바꿨고, 또 한 명은 전학을 가게 됐다. 최초 학교 자체 조사에서 학폭 상황을 목격했던 야구부원들이 진술을 뒤집은 것도 단장의 존재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황 증거는 많았지만, 학폭과 달리 증명하기 어려워 기사화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았다.

8회. 야구 기자는 왜 프로야구 단장 아들을 고발했는가?

야구 기자에게 프로야구 단장은 매우 중요한 취재원이다. 구단 행정 책임자여서 기사화할 만한 정보들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보도 이듬해인 2024년, 팀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면서 단장도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2026년 현재까지도 같은 팀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

다. 학폭 보도 때문에 나는 중요한 취재원을 잃었다.

중요한 건 학폭 보도가 공익적이었냐는 점이다. 2026년 1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고에 따라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가해 학생 세 명에 대해 각각 ‘6개월’ 및 ‘3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 협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야구를 그만둔 학생도 있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반면교사 목적으로 최소한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나 역시 비슷한 생각이다.

9회. 연장전에 돌입한 ‘진실 게임’

가해 학생들은 엘리트 야구부 출신이다. 반면 주니어 야구클럽(생활 체육)에서 야구를 시작한 B 군을 차별했다. 양측의 갈등이 시작된 이유다. 어른들의 대처가 아쉽다. 학폭 사건 초기, B 군 부모는 A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감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학교 자체 조사에서 감독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주고받는 장난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야구는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



피해 학생의 하소연을 외면했던 야구부 감독은 KBS 보도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받은 학교로부터 해임됐다.

면 연장전에 돌입한다. 2023년 시작된 학 폭 사건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성 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 폭 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원점으로 돌아가 면서 민사 및 형사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가 인기인 이유는 나이 도 배경도 국적도 다른 선수들이 함께 뭉 쳐 감동의 드라마를 써가기 때문이다. 야 구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그런 가치가 아닐까. 🍷

KBS 강재훈 기자